

제 39 호

연중제 21 주일
(강림 후 II)

1973. 8. 26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부부의 자세 (夫婦의 姿勢)

김 영 구 신부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시겠습니까?

부부가 단둘이 혹은 귀여운 자녀들과 함께 온종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일요일의 하루는 지난 한 주일간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고마운 날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한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신혼부부가 무슨 일로 뭉쳐 다투었습니다. 싸움 끝에 짧은 아내가 앙칼진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요. 난 친정 어머니한테로 갈테야>

그런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어서 꺼져버리라는 듯이 아내를 노려보면서 지갑을 꺼내어 돈 얼마를 아내 앞에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갖고가! 차비할 돈이야!>
그 돈을 뱅크 받아온 아내가 선 자리에서 돈을 세어 보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것으론 왕복차비가 모자라지 않아요?> 했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부부 싸움은 사랑싸움이니 칼로 물베기나라고 했습니다.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가자면 여러가지로 마땅치 않은 일 신경을 건드리게 하는 일, 화가 나는 일등 갖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순간에 그치는 일에 불과한 일입니다.

잠시만 참고 지나면 곧 후회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무슨 말다툼 끝에 이레신 못살겠어, 이혼해야지!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집을 모두 쟁겨가지고 택시를 불러 집을 싣고 떠나려 하는 참에 남편은 뒤쫓아 나오면서 <여보, 이젠 왜 안가지고 가우? 이것도 당신것인데> 하면서 자기의 몸을 짐짝 위에 내던지더니 아내도 뱅크 하는 말이

<아참, 그걸 잊었군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은 서로의 건강이나 또는 경제적인 밀바탕도 중요하지만 서로간의 이해와 애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리나 저리나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귀찮다고 해서 신경을 돌구고 짜증을 내지 마세요.

부부간의 애정이란 다만 부부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귀여운 자녀들의 것으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에서 정양중)

✽이주일의 미사 ✽

□**입당송**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 종, 주여 살려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제1독서** (요수 24 ; 1-18, 경향잡지 8월호 P. 47참조) 야훼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니 그분을 섬기자.

□**찬가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앞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자 기뻐들 하라. ◎

□**제2독서** (에페소 5 ; 21-32, 성서 P. 445)
그리스도와 교회의와 관계처럼 심오한 진리가 여기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6 ; 61-70, 성서 P. 219)
당신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또 누구를 찾아 가리까?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여, 간절히 비오니, 「화해의 성년」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들어 조그마한 일부터서 당신 안에 서로 일치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당신의 감도하심으로 인하여 교리교사 연수회나 교구 사목지침 마련을 위한 대 협의회가 잘 끝나게 되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기간동안에만 그치지 않고 항상 두루 퍼게 하소서. ◎

3. 영원한 대 사제이신 예수여, 우리 교구의 목자 김 아우구스띠노. 주교의 영명 축임을 맞아 기도하오니, 그에게 당신 목자로서 합당한 지혜와 전강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사랑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주여, 일하시는 보람이 이 땅에 가득 하니, 땅에서 빵을 열고 포도주로 사람 마음 흥겨워 지나이다.

✽ 이 주간의 성경 ✽

- 27(월)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1:1-10, 성서P.464)
복음 (마 태 오 23:13-22, 성서P.56)
- 28(화)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2:1-8, 성서P.465)
복음 (마 태 오 23:23-26, 성서P.56)
- 29(수)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2:9-13, 성서P.465)
복음 (마 태 오 23:27-32, 성서P.57)
- 30(목)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3:7-13, 성서P.467)
복음 (마 태 오 24:42-51, 성서P.60)
- 31(금)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4:1-8, 성서P.467)
복음 (마 태 오 25:1-13, 성서P.61)
- 1(토) 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4:9-11, 성서P.468)
복음 (마 태 오 25:14-30, 성서P.61)

□대화의 광장□

□잔디밭□



청 소 년 과 종 교

박 진 량 신 부

청소년들의 문제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몇몇 젊은이들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말이란, 그것은 극소수의 한 부분을 보편화시켜서 문제들 다루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 점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나쁜 점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실수때문에 말끝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그 모양」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젊은이들도 반발심이 일어나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에 사로 잡히지 않을가 걱정됩니다. 제가 알기에 뛰니 뛰니 해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고자하는 노력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만족할만한 인격을 갖추어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자기들의 돌도 없는 생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선도해야 하겠습니까?

청소년지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도적 입장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더 크나큰 문제가 있지않나생각됩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종교기피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긴 하면서도 「왜, 현대의 젊은이들이 기성종교를 싫어하게 되었는지」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려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하고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시대사조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풍조에 몰려들어 종교심이 없어지고 종교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니 이것 큰일났다고 걱정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종교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젊은이들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더 크고 더 중대한 원인은 종교가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급변하는 현대 문명과 새로운 가치 질서에 아주 민감한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종교는 자체의 색인을 피하지

않고 너무나도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가치 질서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정신적 가치와 이상을 종교에서 찾아옴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종교란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않게 된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종교란 아예 자기들의 기질에는 맞지않는 것이며, 언제나 자기들에게 귀찮은 계율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종교란 것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시대의 젊은이들 보다도 유별나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종교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가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너무나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 자체의 색인과 종교지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종교란 것은 그 본질이, 본래부터, 젊은이들의 기질에는 맞지않고 그들에게 귀찮은 것만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시대감각을 잃고, 저대로 그 시대의 정신사조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뒤처지게 된 나머지, 아집에 사로 잡혀서,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종교의 근본이념은 물론 창조적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은 우리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 외아들을 희생하시기 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와같이 「하느님과 인간」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종교의 근본이념이라고 생각할 때, 젊은이들과 종교는 서로 멀리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장 가까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란 지나간 과거나 닳아올 미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젊은이들과 그들을 알뜰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는 종교나 미래만을 생각하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때 종교는 청소년들을 지도함에 있어, 옛날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무작정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리는 본래 변치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인식이나 표현은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종교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어떻게 들어나지를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카톨릭 센터 관장>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제과 ②5011 찻집 ②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찻 집 *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 (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②2212 ②7071)

김 병 구(빈첸시오)

□ 양 지 쪽 □



그 게 그 것?

복싱 중계를 듣다보면 별 회한(?)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온다. -“두 선수 서로 때리고 맞았습니다.”-의례적 복싱 시합이니까 때리고 맞는 일이란 정해진 이치다. 적어도 선수로서 링에 올라섰으니까 항상 두들겨 맞지만도 않을 것이고. 다만 어떤 선수가 멎었고 힘지게 주먹을 내질렀는가가 문제다. 그런데도 그런 표현이 방송되어 나오는 것은, 아마 초년생 아나운서가, 너무도 빨리 교차되는 두 선수의 주먹을 제때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랬을런지도 모른다.

여기서 복싱 중계의 한토막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때리고 맞는> 이 평범한 이야기가,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뜻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들겨 뭉수만도 없을 것이고 항상 얻어 터질 수만도 없을 것이다.

요즘을 묘한 서울생활을 하면서 얻은게 몇가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 그 <땀뻘>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승강장에서 코가 매개 하도록 연기를 들어마셔야 하며, 저녁을 사먹으러 나와서는 먹은 것 같지도 않은 식사를 마치고서 소화를 돕는담시고 얼디면 코타를 공원을 산책한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공원을 한바퀴 휘 돌면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수은등 불빛 아래서 배드민턴을 치고 가까운 사람끼리 다정한 시간을 갖는 것 까지야 정상이겠는데, 돈을 내고 자기 노래를 녹음해보는 사람 차례에 와서는 그만 피익 하고 웃음이 터진다.

버스 뒷 풍무니에서 쏟아지는 새까만 연기를 목이 아프도록 들어마시며, 악마구리 배처럼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는 차들을 보면 소위 공해(公害)라는 것에 실감이 간다. 또한 오죽이나 속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힐 지경이면 그렇게도 염치중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녹음기에 대고 노래를 불러 뭉 수 있는지도 이해가 간다. 그런가하면 그렇게들 살고 있는 서울을 찾아서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고향을 등지는 시골의 많은 젊은이들의 심정도 알만 하겠다. 하지만 불편한 농촌생활이기는 해도 서울보다 나은 점이 한둘이 아닌것 같다. 결국 그게 그것이 아닌것 같다. -“서로 때리고 맞았습니다.”-바로 이것.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루가10장)이 되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실리적인 생활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들인지라 문제가 있다. 눈앞에 직면한 이익과, 약간의 손해와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영원한 위안을 받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게 그것일 수 있을까? 그건 분명히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가치관과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성년이다. 너와 나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불씨들을 없애버려야 할 성년인 것이다. (갑)

요심이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직원 채용 긴급광고>

전주시 서노충동 601
전주 가톨릭 센터

본 가톨릭 센터는 보일러 조수및 건물관리 담당직원 1명과 사무실 위무담당직원 1명을 아래와 같이 전형하여 채용코자 합니다.

1. 자격: 현역 복무를 필한 남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2. 제출서류 및 마감일자: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1통과 관한 본당신부의 추천서 1통을 73년 8월 26일까지 본 센터의 접수실에 제출.
3. 전형방법 및 일자와 장소: 보일러 조수및 건물관리 담당직원에게는 간단한 실기시험과 면접, 사무및 위무담당 직원에게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73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센터에서 실시함.
4. 기타사항: 채용여부에 관한 통지는 전형된 분에게만 취업예정일인 73년 9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973년 8월 15일 성모승천축일에 가톨릭 센터 관장 드림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 6589
(미미사장 ㉠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민주 (가타리나)

왕자표연탄

전화: ㉠5287 ㉠6504

고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27일(화)은 성 아우구스티노 축일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신 주교님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 2. 지난 23일부터 25일에 걸쳐 있었던 제1차 교구사목에 대한 대협의회가 여러 교형 자매의 적극적 협조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순
사도 회장 김종순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5부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십시오)
- 2.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성당에서 (인감 제출하십시오)
- 3. 영화 "십계" 할인권 종교영화 "십계"의 할인권을 배부합니다. (신착순)
□지난 주일 봉헌금 32,539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견진자실분은 신청서를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 2. 교무금을 빨리 완납 합니다. (9월이 연말입니다.)
- 3. 예비자 영세식이 9월 15일 토요일에 있어오니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아세례도 같이 있겠습니다)
- 4. 사제양성 후원금을 제달에 꼭꼭 납부합니다.
- 5. 주일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 6. 나와 내 가족들의 속죄를 위한 성미운동에 정성껏 협조합니다.
- 7.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속 전주 형제회 심의회가 중앙성당에서 있어오니 빠짐없이 참석 요망
- 8. 복자성당 우리실리스타미회합이 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후 있습니다. (장그래고리오 동주 형제 맥에서)
- 9. 본당 신부님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계속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0. 남자 성인 예비자 영세 (9월 15일)를 위해서 매주 금. 토 요일 저녁 미사후 교리 지도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미 2말6되, 누계 183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9,72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2. 고요성 신부님 귀국 환영식 <오늘 10시 미사후>
- 3. 제속 형제회 심의회 <8월 31일(토) 저녁 8. 30>
(간부전원 참석 바람)
- 4. 성 프란치스코 제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 5. 9월 11일은 추석절 (위령의날) 추수 감사절입니다
본당에서는 조상(선형)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성심껏 미사에물을 사무실 총무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성미 9말, 누계 5가마
지난 주일 봉헌금 12,03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육낙

- 1. 8월 28일은 주교님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오니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 2. 견진자 교리는 9월 첫주(2)일부터 16주일까지 공식 미사후 및 저녁미사후에 있음.
- 3. 9월 첫주(2)일 저녁 미사후 사도회 월례회 있음.
- 4. 학생교리 9월 2일 공식 미사후 부터 있어오니 부모님들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5. 8월 26일 공식미사후 신용조합 월례회 있음.
- 6. 8월 22일 상관 보조침례시 각 부락 친목 대회를 성대히 거행하게 된것을 교형 자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8,774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신용조합 통장을 내주시시오.
28일부터 실시하는 감사에 대비하여 27일(월)까지 사무실에 통장을 내주시시오.
- 2.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3. 사도회 월례회 <8월 31일(금) 오후 8시 30분>
- 4. 9월이 73년도 마지막 회계월입니다.
교무금을 납부하여 본당 살림 도움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4,98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방ziger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성당
- 2. 첫 영성체 오늘 9시 어린이 미사
- 3. 유아 영세 다음주일(9월 2일) 10시 미사후
- 4. 교무금 완납 운동 지난번 우리성당 마당 개조 사업에 협조 청신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 되었습니다.
금년도 교무금 완납 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 5. 새전동 성당을 이룩하는데 협조하신분.
주원철(5,000) 서창원, 서정길(각2,000원), 이부남, 오봉선, 장순자, 노영란(각 1,000원), 배인기, 최점순 (각500원)
소계 14,000원
누계 778.300 자갈 200추럭 탁주 3섬
- 6. 신분을 밝히지 않는 어느 분은 성당 제대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26,373원. 감사합니다.

관인 현대음악학원

과 목 ; 쳄프. 피아노. 전자울켄. 어코디온 클래식 기타. 드림. 성악. 관악

특 전 ; 악사 희망자 수료후 취업 앞선 교우 특별 우대함.

원 장 ; 염 규 철(요셉)

부원장 ; 이 일 규(알로이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전주극장 동편)